

오늘의 논의 사항

1.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까지의 문제의식
2. 총론: 제 11대 총여 선거의 기조(여성주의적 질서의 확산과 학생사회의 질서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정책 생산(발제문 검토)

3. 선본체계 점검

*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각자 조금은 다르지만 많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11대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총여학생회/여성자치연합 질서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조금은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대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여학생회 선거란 결국은 그러한 논의를 공유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위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선거란 특정 사람이 총여학생회를 장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내건 사업을 치뤄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학내 자치단체들이 만들어내는 여성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총여 선거에 대한 간략한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전국

받는 이: 장담 · 틈틈 선거운동본부원

주는 이: 장담 · 틈틈 선거운동본부 선전국

용도: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선전국의 세부계획

10. 26 두 가지 기조 색깔 결정

10. 27 연서판 디자인과 로고 디자인을 열심히 고민

10. 28 선전국 내부의 최종 연서판 견본과 중심 로고 제안, 옷 디자인 고민

10. 29 선전국 내부의 최종 옷 디자인 제안

10. 30 연서판 재료 준비, 옷 주문

11. 2 자료집 표지 제작

* 아직 명확한 선거 일정이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증자보 제작에 관한 계획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책토론회

남녀고용평등법 10년, IMF 1년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

올해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 IMF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의 고용확대, 고용평등은 진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가시화된 경제위기는 여성들의 삶과 노동에 큰 변화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 남은 사람 그리고 노동조합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업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3:00 - 3:10 인사말 박원순(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이은영(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외대 법대 교수)

3:10 - 4:00 주제발표 1. 경제위기가 여성의 고용평등과 실업에 미친 영향

오정진(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주제발표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과제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고용연구실 연구위원)

4:00 - 5:00 토론: 김경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영주(금융노련 부위원장)

엄현택(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장)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5:00 - 5:30 종합토론

일 시: 1998년 10월 30일(금) 오후 3시 - 오후 5시 30분

장 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신관 4층 중강당

주 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후 원: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고양semit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 촉구대회'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신 :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이하 여노대연)에서는 그동안 한국노총 여성국, 민주노총 여성국, 한국여성노동자회 실업대책본부와 함께 '여성실업대책 촉구대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연대활동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여성노동권 확보투쟁의 역사를 IMF경제위기의 강풍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리려는 움직임은 이제, 우리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알고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실업대책에 눈가리고 아웅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남성=생계부양자 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악용, 조장하여 여성의 노동권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3차례의 촉구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과 반응도 없는 집권여당을 향해, 남녀고용평등의 달 10월, 보다 강력히 여성실업대책을 촉구하며 보다 단결된 여성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더욱이 신규실업문제는 전체실업문제속에서 부차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신규실업, 여대생의 실업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운동단위와 여학생들의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촉구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로 당당히 요구합니다.

또한 여성실업문제가 여성운동단위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기에 보다 많은 청년학생들의 연대가 요구되며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각기 다른 위치속에서 어떻게 청년신규실업운동을 전개해 나갈지를 실천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촉구대회

일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 5시

장소 : 여의도 새정치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 한국여노회 여성실업대책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순서

사회 : 여노대연

내용 :

1. 남녀고용 평등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를 향한 여성노동자들의 자유발언대 (2014 자유발언대)
- 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 그와 관련된 정부측에 대한 요구와 규탄등을 현장사례, 개인별 사례 등을 통하여 제기하고 촉구한다.
2. 건의문 채택 - 집권여당에 직접전달하여 이후 면담을 추동해 낸다.

* 이렇게 함께 준비합니다.

각 학교별로 신규여성실업운동의 흐름을 총화하여 요구안과 사례들을 자유발언대로 모아냅니다.

유인물이나 피켓등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과 문제의식을 알려냅니다.

사전에 토론등을 통해 학교별로 흐름을 조직화합니다.

10월 29일 준비